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 2016년 포어 §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  
(고후 5:18-21, 창 33:1-4)

十 행동 지침十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되는 교회
- 2.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seoulchurch.or.kr

야고보서

## 죄인을 돌아서게 하는 자 (약 5:19-20)

## The Person who Makes Sinners Turn Back (James 5:19-20)

야고보 사도는 서신을 마치면서 신앙의 실천적인 면을 또 한 번 강조합니다.

### 1.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약 5:19).

교회 안에는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착실하게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잘 하던 사람이 시험에 들어서 봉사는 물론 신앙을 접고 있는 자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진리에 대해 배우긴 했으나 여전히 자신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므로 시험이 올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들에 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형제가 진리에서 떠나면, 첫째,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을 찾아가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되면 세 번째는 한 두 사람을 더 데리고 다시 가서 권면하며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해야 합니다. 만약 이렇게 했음에도 말을 듣지 않는다면 네 번째로 교회에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말도 듣지 않는다면, 다섯 번째, 그를 출교시켜서 이방인과 세리 같이 여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죄하는 것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마 18:18).

### 2.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받는 복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약 5:20).

시험에 든 자, 미혹된 길에 빠진 자, 방황하는 자들을 진리의 길로 돌아서게 하는 자는 곧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일입니다.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다시 돌이키게 하는 자는 그의 허다한 죄가 덮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하고, 권면하고, 애쓰고 수고할 때 하나님은 그런 전도자들에게 예외적인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그의 편지를 마치면서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 잃어버린 영혼들, 그들을 찾아가 사랑과 말씀으로 전도하며,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눈물과 권면으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웃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혼은 없습니까? 미혹되어 진리에서 떨어진 영혼은 없습니까? 찾아가 전도하고 권면하고 가슴을 치며 울기라고 하여 죄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주님께로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By finishing his letter, James the Apostle once more emphasizes the practical aspect of faith.

### 1 Turn whoever left the truth from the error of their way

“My brothers and sisters, if one of you should wander from the truth, and someone should bring that person back,” (James 5:19).

In the church, there are many people who have left the truth by being infatuated. Unexpectedly there are many people who have worshipped service steadily and served voluntarily stop their service and finish their faith because they fell into test. Even though many people came to church and learned the truth, they could not endure the test because they could not give up their greed.

We have calling for those who left the truth by being infatuated. If they leave us, firstly, we should pray for them. Secondly, we should visit and encourage them. If it did not work, thirdly, we take two or three more persons

again and encourage and two or three persons give evidence to them. If they don't follow what you have done, fourthly, you have to say to church. If they don't follow church, fifthly, James says that you let them go out of church and treat them like an alien, or tax collector.

However, we should be careful to condemn other people. It is because whatever we bind on earth, will be bound in heaven (Mat. 18:18).

### 2. Blessing of whoever turns a sinner from the error of their way

“Remember this: Whoever turns a sinner from the error of their way will save them from death and cover over a multitude of sins” (James 5:20).

Whoever turns a man who is tested, a sinner from the error of their way, a man who wanders from the truth will save their spirit from death. And whoever turns a sinner who left by being infatuated will cover over a multitude of si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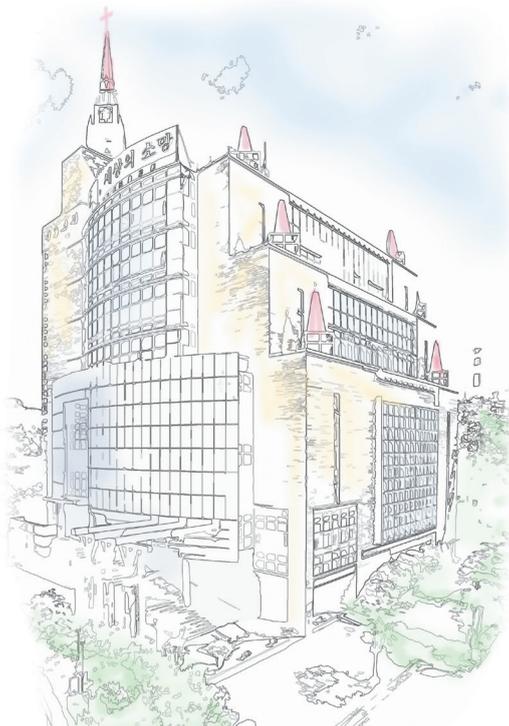
Our sins are never forgiven due to some of our meritorious deed. However, when they love, show dedication, encouragement, and hardship, in order to turn the most precious souls in the world to the Lord Jesus Christ, God will confer an exceptional love and righteousness on such evangelists.

My beloved Christians,

By finishing his last letter, James the Apostle emphasizes that we visit those who left the truth by being infatuated, and the lost souls and then we preach gospel with love and God's word, and tears that could not be given up to the end and encouragement. Nothing is more important than that for us.

Is there any lost spirit in our neighbor? Is not there any soul who left from the truth by being infatuated? By visiting, preaching God's word, encouraging, and praying, let sinners turn back from the way of sin.

By turning them to the Lord, I sincerely pray that you will be blessed children of the Lord lightening eternally like stars in the sk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 제101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개회

9월 26일(월)~29일(목), 안산제일교회

우리 교회가 소속된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제 101회 총회가 “다시 거룩한 교회로:(롬 1:17, 레 19:2)라는 주제 하에 안산제일교회(고훈 목사)에서 9월 26일(월)부터 29일(목)까지 계속된다. 우리 교회에서는 총대로 박노철 목사, 노문환 장로, 신용식 장로가 참석한다.

## 2016년 전교인 성경암송대회

범위: 히11장, 롬8장, 요일4장

예선: 10월 2일(주일)/ 본선: 10월 14일(금) 오후 7시

2016년 전교인 성경암송대회 예선이 한 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10월 2일(주일) 각 부서별 예선을 통해 부서별로 5명 이내로 선발하여 10월 9일(주일)까지 교육위원회 소속 부서들은 서기 김광태 집사에게, 일반 장년 성도들은 사무국에 등록해야 한다. 장년부는 예선이 없으므로 10월 9일까지 사무국에 등록하지 않으면 본선 당일 신청은 받지 않는다. 본선은 10월 14일(금) 오후 7시 6층에서 실시한다.

## 호산나대학 2016 문서실무사 4급 자격시험 응시생 전원 합격

7월 12일 한국정보관리협회에서 주관하는 문서실무사 4급 자격시험에 호산나대학 교양학부 학생 22명이 응시해 전원이 합격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국가공인 문서실무사 4급 자격증은 한글키보딩에 관한 기능을 신속·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판단하는 시험으로 학생들은 약 2개월 동안 점심시간과 방과후 시간을 활용해 꾸준히 준비하였다. 이번 시험은 교양학부 학생들이 대학 입학 후 준비한 첫 자격검정시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자격증을 취득한 이만희 학생은 “선배들을 보면 자

격증이 많아 부러웠는데 합격해 너무 기쁘다. 어려울 것 같아 응시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포기하지 않은게 잘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자격증 취득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감을 얻고 취업에 대한 의지를 다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호산나대학은 학생들을 취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교과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며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지속적인 경력관리를 할 것이다.



## 화기 사용 엄금

교회 내에서 어느 부서든 개인이든 교회에서 허락하지 않은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지난 목요일 사무국은 지하 3층에서 LP 프로판 가스통을 발견하여 긴급 수거하였다. 특히 LP 가스는 밀로 가라앉는 성질이 있어 자동차와 스파크가 일어날 경우 커다란 화재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화기이다. 이후로는 어떤 부서나 개인을 막론하고 8층 만나홀 주방이 아닌 곳에서는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 교회 비치용 성경책 회수

교회 비치용 성경이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관계로 정작 예배 시 필요로 하는 성도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고 있다. 모든 부서는 부서장의 책임 하에 각 부서에 있는 교회 비치용 성경책을 회수하여 본당 2층 예배실 입구에 가져다 놓기 바란다.

## 영어예배부 헌신예배 오늘 찬양예배 시

영어예배부 헌신예배를 오늘 찬양예배시 드린다. 설교는 영어예배부 지도 교역자인 김다니엘 목사가 담당한다.

### 이종윤 원로목사의 제자의 길

#### 생각 없는 세대에서 기독교적 사고를 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문화적 양식을 생각할 때 우리는 소위 철학이나 세속주의, 인본주의 상대주의, 물질주의 같은 주의(ism)를 생각하게 된다. 반면 무사상, 생각 없는 세상(Mindlessness)과 같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분석적이고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볼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는 세상이 있다.

#### 1. 한국인은 생각 없는 삶을 살고 있다

지금의 세대가 생각 없는 세상이 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급속한 근대화를 가져오게 한 서양식 물질주의, 철학적 회의주의가 그것이다. 돈을 버는 일에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생각을 깊이 했다면 미친 듯이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그보다는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시대를 mindlessness 하게 한 주범

은 TV이다. 우리의 인생은 바보상자 앞에 앉아 하루에 3-4시간씩 아무런 생각 없이 화면에 나타난 그림을 따라 쫓아다니다가 지쳐 쓰러지는 인생이다.

#### 2. 자신을 즐기다 죽는다

뉴욕대학교의 닐 포스트만 교수는 TV에 대해 더 많이 부정적 입장을 지적한다. 1985년에 그는 ‘죽기 위해 자신을 즐기려면’이라는 책을 출판했다. 포스트만 교수는 활판시대(the age of typography)와 TV 시대를 대비시키고, TV 시대를 쇼 비즈니스 시대라고 했다. 즉 읽는 시대에서 보는 시대, 다시 말해서 생각 없는 문화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TV 시대에 약한 또 다른 영향을 들라고 하면 정치이다. 레이건은 ‘정치는 쇼 비즈니스와 같다’고 했다. TV에 비친 정치의 목적은 높은 도덕성, 명료성, 정직성보다는 하고 있는 일을 확대하여 나타내 보여 주려는 것이다. TV 때문에 일어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사실을 사실로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기는 알되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3. 하나의 흥행(오락)으로서의 종교

TV로 인해 나쁜 영향을 받은 것은 종교도 예외가 아니다. 종교도 TV에서는 하나님의 흥행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전락한다. 빌리 그래험, 찰스 스텐리, 케네디(D. J. Kennedy) 같은 이들은 TV의 흥행 사들이다. TV에 나오는 예배실황은 세속 TV의 다양

한 쇼처럼 음악, 간증 등 다양하게 꾸며진다. 종교가 TV로 나올 때 잃은 것이 무엇인가? 초월성이 상실된다. 즉 하나님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심오하고 거룩한 인간의 활동은 다 벗겨지고 의식도, 교리도, 전통도, 신학도, 영적 초월성도 없다. 설교자만 군림하고 하나님은 두 번째이다. 많은 교회 예배 시 목회기도가 없다. 두뇌 없는 음악, 짧게 줄인 설교, 개인 얘기, 웃기는 얘기로 채워진다.

죄에 대한 언급은 약화되고, 필요를 채우기 위한 설교, 그러나 참 필요는 외면하고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있다. 예수는 만담인가? 오늘날 기독교회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흥행장소로 전하고 있지 않은가!

#### 맺는 말

존 스톡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6가지 영역을 다루고 있다.

우리 마음을 예배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우리 마음은 믿음을 구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우리는 마음을 거룩으로 성장토록 사용해야 한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무슨 결단을 내려야 하는지 우리 마음을 전도하는 일에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 마음을 목회 사역에 사용해야 한다.

(다음 주 계속)

 빈약한 자 구제 - 청년부

# 두드림

청년부는 지난 해 성탄주일부터 부활절, 추석까지 교회 주변 대치동에 홀로 거주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아뵙는 "두드림" 행사를 주기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방문을 두드릴 때마다 친히 그분들과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 함께 한 그 교제의 시간들이 사랑으로 가득차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로 파스한 손길이 필요한 우리 이웃에게 우리의 작은 손길과 마음이 지속적으로 닿아 머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 사랑하는 서울교회와 함께



이민호 집사 (12교구)

'사서함'은 '사랑하는 서울교회와 함께'의 약칭으로서 20대부터 40대까지 청·장년 성도들로 구성된 모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산물이며 주님의 보혈로 값 주고 사신 서울교회가 각종 유언비어에 시달리며 아파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런 서울교회를 바라보시며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가장 많은 눈물을 쏟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의 수축을 위해 눈물로 애통하며 참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느헤미야와 같이 서울교회의 2막을 이끌어 나가야 할 다음 세대들인 우리는 서울교회 및 한국교회의 회복과 나태해져 있던 개개인들의 신앙 회복운동을

위하여 상반기에 약 3개월 가까이 릴레이 금식기도를 진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릴레이 금식기도를 계속 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현재 교회의 분열된 상황을 직시하고 우리들의 자랑이었던 서울교회가 도대체 어떤 일들을 겪어왔고 무슨 일로 인해 지금과 같은 분란 속에 빠지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여 성도들간 소통의 창구 역할을 담당하고자 기도하며 지금은 작년 8월부터 도출된 일들부터 최근 아가페타운 관련 사항까지 하나씩 순서대로 관련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며 확인 절차를 거쳐 사실을 알리는 '사실 확인 프로젝트'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교회의 분란을 틈타 6월과 7월에는 교회 내에서 신천지 전단지가 발견됐을 뿐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직접 신천지 회원들이 홍보지를 나눠주는 사태까지 벌어졌었습니다. 이에

사서함에서는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자발적으로 모여 매 예배가 끝나는 시간에 '신천지 OUT'이라는 피켓을 들고 교회 주변을 순찰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꾸준히 그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서함의 회원들은 우리 서울교회가 바른 신앙, 바른 신학으로 무장하고 주께서 허락하신 비전을 향해 달리던 열정 있는 교회로 다시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이 나라의 소망이요 주님의 소망입니다. 지금과 같은 무질서 속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땀과 헌신과 순종 속에 그 어느 곳보다도 아름다웠던 우리 서울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다음세대라 불리던 사서함의 회원들은 주의 몸 되신 교회를 자신의 몸보다 더 귀히 여기고 회복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신뢰를 부탁드립니다.

 선교보고 - 방글라데시



2014 방글라데시 비전트립

교회와 선교부에 방글라데시에서 평안의 인사와 기도제목을 올립니다.

한국에서 돌아온지 이제 두 달이 되어가는데 제 느낌은 벌써 일년은 지난 것 같습니다.

이곳 방글라데시 테러 후유증으로 외국인인 많이 떠나고 지금도 여전한 위험을 안고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테러 척결을 위해 많이 힘을 쓰고 있는 것이 보여 감사합니다.

거기에 다음 주에 있을 소를 잡아 제사를 하는 고르반 이드가 있어 거리 곳곳에 소 시장과 염소 시장이 열려 냄새와 교통체증 등 이중고로 고생이지만 모슬렘들의 큰명절인 고르반 이드 준비로 시장 등이 오랫동안 복잡하고 번잡합니다.

이슬람 축제인 '이드 알야드하'(희생제)가 주민들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공터, 주차장, 집 앞 등에서 마구잡이로 도축하면서 도축 부산물과 피가 비에 섞여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은 거리를 뒤덮으면서 악취가 진동하게 됩니다. 이번 행사로 10만 마리

동물이 도축된다고 합니다. 이 땅이 소를 잡아 드리는 제사가 아닌 예수님을 아는 것이 복임을 아는 민족이 되길 기도합니다.

또 한 명의 여자 아이가 (솔파나) 호스텔을 떠났습니다. 이제 공부에 재미있어 하며 말씀도 잘 외우고 예뻐던 아이입니다. 계부가 시골 집에 보내 자기가 낳은 아이를 돌보며 아픈 할아버지 병 수발하라고 데려갔습니다. 그러다 몇 년 있다가 지참금 없이 보내려면 어린 나이에 나이 많은 남자에게 결혼 시켜 버리겠지요. 모슬렘 나라에서 여자 아이교육 시키는 것이 이렇게 힘든데요. 더구나 지참금 때문에 어려서 결혼을 시켜야 하는 가난한 가정은 계속 무지와 가난을 대물림하고 있습니다. 남은 우리 호스텔에 있는 아이들은 다시는 그러지 않길 기도해주세요.

항상 기도와 물질로 도우시는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방글라데시에서 000 선교사 올립니다.

## 청년부 I·II부 연합특강

오늘, 오후 3시 30분 / 101호

청년1,2부는 연합하여 오늘 오후 3시 30분부터 4시 50분까지 김보령 자매를 강사로 모시고 '방송을 통한 하나님의 선교' 특강을 한다. 김보령 자매는 현재 극동방송 PD로 '주님과 이 아침을', '말씀 365일', '김원희와 차 한 잔을' 등을 제작했으며 현재는 미자립교회와 개척교회의 중고등부를 위한 특집 공개 방송 '거룩한 성장 - 하나님의 꿈'을 제작 진행 중이다. 청년부회원들은 전원 참석 바라며 관심있는 성도들의 참석도 환영한다.

## B.M.W.운동



Bus



Metro



Walking

### 동정

- 주일식당봉사 : 에스더 전도회 (9.25)  
마리아 전도회 (10.2)
- 금주의 식사제공 : 지성철 집사 유모종 권사 가정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임대훈 집사 옥희숙 집사 가정 (자녀 결혼 은혜 중에 마치고)

편지왔어요

## 시골교회 노령화의 슬픔

안녕하세요. 서울교회에서 지원해 주시는 화곡교회 백영주 목사입니다.

자주 소식을 전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하루 하루가 바쁘게 지나가는지...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는 기도해 주신 덕분에 편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인들이 연세가 많아지고, 몸이 더욱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병원 모시고 가는 일이 자주 생겨서 마음이 아픕니다.

얼마 전에는 건강하시던 장로님께서 일하시다가 손을 다쳐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1주간을 집에 계시는 일이 생겨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며칠 전에 생신을 맞아 손자가 외식해드렸더니 너무나 행복해 하셨는데 이젠 94세의 연세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아 슬펐습니다. 아드님과 생활하던 할머니의 가정에 아드님이 암 진단을 받아 함께 계시지 못하고 딸집에 잠시 가시기로 하고 떠나는 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90세된 노인이 고향을 떠나시면서 평생 여기 살았는데 내가 어디 가서 살던 마음이 편하겠냐는 말씀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드님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면서 할머니의 마음이 낙심하지 않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킨슨으로 고생하신 집사님의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치매가 살짝 와서 혼자 계실 수가 없어 자녀들의 집에 모시고 있는데 내가 왜 집 두고 어디 가냐 하면서 우시는 모습들, 모든 것이 노년에 계신 어르신들의 상황이고 시골 교회의 형편에 가슴 아파서 한동안 마음을 추스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도움을 기다리는 마을의 어르신들과 교회를 오시는 분들이 있기에 다시 마음을 추스려 초복인 주일 날에는 삼계탕을 해서 대접했더니 그릇을 비우시면서 좋아하시는 모습으로 또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자꾸만 요양원으로, 자녀들의 집으로 떠나 가시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마음이 답답하고 낙심되지만 또 다른 새로운 얼굴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믿고 기도하면서 달려갑니다.

지금은 교인들이 집을 떠나 계시지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다시 교회로 올수 있게 해 주심을 믿는 마음을 품고 새벽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과 사랑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경상북도 의성군 화곡교회 백영주 목사 올림

##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으로 취업에 날개를 달다

7월 13일 한국커피바리스타협회가 주관하는 커피바리스타 2급 자격시험에 본교 서비스학과 3학년내 재학중인 7명의 학생이 응시해 전원 합격하였다.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실습을 하는 교내 카페가 검정장으로 인정되어 학생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감 있게 바리스타 자격시험에 임했다. 전공수업과 방과후 수업을 연계하여 꾸준히 준비한 김지훈 학생은 "지도해주신 교수님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을 밝혔다.

호산나대학은 발달장애인의 바리스타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욕구를 반영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바리스타가 되기 위해 자격취득 및 현장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자격증을 따게 되어 취업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신감이 생겼다. 꼭 카페에 취업해서 맛있는 바리스타가 되고 싶다."고 소

##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제101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를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도하옵소서.
2. 다락방 모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게 하옵소서.
3.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 당 II, III, IV 층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웨스트민스터 홀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젊은이 예배	오후 2시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 당 II, III 층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 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 ■ 교회 오시는 길



### ■ 서울교회QR코드

